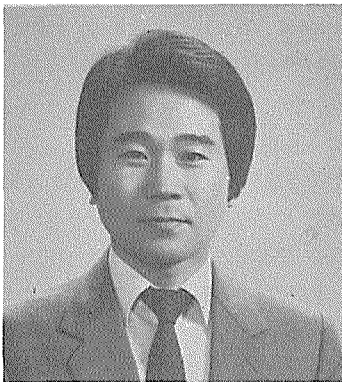


I. 先物去來의 필요성

급락하던 原油가격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固定油價制 실시와 감산합의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低油價, 低金利, 低달러기치라는 소위 3低현상으로 풍미되었던 작년도 국제경제여건이 금년도에 들어서서 油價의 회복, 달러에 대한 원貨價値의 상승, 일부 원

先物去來의 필요성과 내용



姜 東 雨
〈선물거래협회 부장〉

자재가격의 상승등 국제경제여건의 향방을 짐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어느 해보다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러한 불확실하고도 可變的인 국내외 정치경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전략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韓國의 경제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보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모델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국제정치경제의 환경변화는 언제 다시 제3차 석유위기를 몰고 와서 韓國경제를 괴롭힐지 알 수가 없다.

세계 에너지의 상황변화는 그렇지 않아도 자원매장량의 한계와 지역편중으로 인해 세계 정치정세에 따라서는 또다시 위기의 재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더불어 국제원유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야기시켜 또다시 원유가격의 앙등을 몰고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소요에너지의 7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비용중 원유가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생각할때 원유수입부담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유시장의 불리한 국제시세 변동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안정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원유도입을 위한 戰略수립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되어

● 先物去來는 선도거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다수의 매매자가 공인된 상품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정형화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의 일정시점을 상품인수도의 만기일로 정하고 거래시점에서 단지 가격과 물량만을 결정하는 거래방식이다. ●

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시장환경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危險부담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고자 國際商品市場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先物去來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국제 원유시장 주변여건의 변화는 원유거래방식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세계 원유가격을 주도하는 역할이 제2차 석유위기 이후에는 현물시장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본다면 최근의 원유시장은 수요공급의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원유 先物市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先物市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先物去來는 헤징(Hedging)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격의 등락이라는 위험(Risk)을 회피, 또는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기업, 국가, 가계등 경제주체가 생산자, 중간상, 소비자로서 상품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않고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 先物去來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II. 先物去來의 형성

상품의 거래형태가 매매쌍방간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상품이 대금의 수수가(Payment) 이루어질 때 이를 現物去來라 부르고, 이때에 결정된 가격이 現物價格이다. 매매쌍방의 필요에 따라 계약시점에는 가격과 물량만을 결정하고 상품의 인수 또는 미래의 일정시점으로 정하는 거래방법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先渡去來(Forward Transaction)이다. 先渡去來는 거래당사자

간의 私的인 계약이며, 계약이행에 대한 공적인 보증기관이 없고 거래되는 상품, 거래방식 및 계약형태에 일정한 표준이 없다. 先渡去來는 계약이 체결된 후 시세변동에 관계없이 계약된 가격으로 實物商品의 인수도로서 거래가 종결되는 것으로 계약시점부터 상품의 인수도시점까지의 기간동안에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위험에 대한 방비책이 없다. 先物去來(Futures Transaction)는 선도거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다수의 매매자가 공인된 상품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정형화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의 일정시점을 상품인수도의 만기일로 정하고 거래시점에서 단지 가격과 물량만을 결정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 선물계약으로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것은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매입하는 것은 상품을 인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선물계약은 만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해당상품을 인수도하고 계약당초에 정하여진 상품대금을 受拂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시키거나, 계약 만기일 이전에 당초 매입한 계약분을 다시 해당 선물시장에서 다른 願買者에게 매도하거나, 당초 판매한 계약분은 다시 매입하는 反對賣買의 절차를 통해 現物引受渡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는 단지 최초 계약가격과 반대매매에 의한 가격과의 差額만을 受授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소위 差金決済로서 先物去來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先物去來에서 실제 현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거래량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先物市場에서 거래되는 先物價格(Futures Price)은 現物市場에서 이루어지는 現物價格(Spot Price)보다高價인데, 이는 해당 현물을 先物계약기간동안 보관하는데 드는 보관비용에 연유하는데, 보관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는 대개 이자비용의 폭을 상회하지 않는다. 이는 현물을 처분하여 현금의 형태로 은행에 예치하였을 때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이러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고가로 형성되는 시장을 正常市場이라고 하며, 이는 정상적인 수요(매입 세력)와 공급(매도세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를 말하며, 반면 어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오히려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고가로 형성되는 일시적인 非正常市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어느 특정시점에 있어서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벗어날 때 발생한다.

선물가격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선물기간이 만기일에 다가오게 되어 보관비용은 경감하게 되고 따라서 現物化하여 약정된 인수도일인 만기일에는 現物이 되어 버린다. 즉 先物계약은 만기일에는 商品과 현금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先物價格)으로 交換하게 되는데, 商品去來所에서의 現物引渡는 거래소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상품의 창고증권(Warrant)과 대금이 교환되면서 이루어진다.

先物市場의 참여자들은 실물거래와는 관계없이 상품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취하려는 투기자와 실물거래와 관련되어 이러한 가격의 등락에서 초래되는 재정상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로 구별된다. 상품가격 등락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는 先物去來方法을 헤징(Hedging)이라 하고, 이런 목표로 先物去來를 하는 사람을 헤저(Hedger)라고 칭한다.

상품시장이 선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기자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기자들의 시장참여는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헤저들에게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流動性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선물시장은 헤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품가격의 등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투기자들에게는 헤저가 전가시키고자 하는 위험자체가 이익을 포착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서의 상품이 될 수 있게 하는 장소인 것이다.

국제상품거래소에서는 전세계 구석구석으로부터 해당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집결되고, 또한 수많은 투기자들과 헤저들의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예측이

반영되면서 매입이나 매도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秒單位로 가격이 변동하면서 先物과 現物이 去來되고 있다. 이렇게 상품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은 즉시 전파를 타고 전세계에 알려지며,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물거래의 계약가격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價格指標로서의 역할을 한다.

Ⅲ. 헤징의 원리

위험을 회피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한 선물시장의 이용은 헤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실물영업의 거래와 반대되는 거래형태를 선물시장에서 취하게 되는데, 실물시장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동시에 선물시장에 매도로써, 실물시장에서의 매도는 동시에 선물시장에서의 매입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실물시장과 반대되는 거래를 동시에 취하게 되어 실물거래의 결과와 선물거래의 결과는 선물가격과 실물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게 되어 각각 이익과 손실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가격등락에 따라 한쪽의 손실은 다른 한쪽의 이익으로 보전받게 되어 당초에 계획된 실물거래의 정상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된다.

헤징의 기본원리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이는 실물과 선물의 반대매매형태의 거래방법이 서로 相反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으로

〈表 - 1〉 가격상승의 경우

실 물 거 래	선 물 거 래
BUY LOW SELL HIGH	SELL LOW BUY HIGH
PROFIT	LOSS

〈表 - 2〉 가격하락의 경우

실 물 거 래	선 물 거 래
BUY HIGH SELL LOW	SELL HIGH BUY LOW
LOSS	PROFIT

써 헤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치가 항상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격자체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크기 때문에 헤징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VI. 헤징의 이용형태

실제 헤징을 하려면 관련되는 상품(原資材, 金融商品 포함)의 가격등락에 따른 당면한 위험의 실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오는 위험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따르는 위험이 있는 바, 일반 제조업(정유회사)의 경우 제품(유류제품) 판매가격이 먼저 결정되면 원료(원유) 구입시점에서 원료가격이 상승이 되면 위험부담이 될 것이며, 원료의 확보가 선행되고 생산된 제품을 나중에 시세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면 판매시점에서의 제품가격 하락이 위험부담이 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제품이나 원료의 과다한 재고를 보유한 회사가 있다면 시장시세의 하락에 따른 재고가치의 하락이 또 하나의 위험부담이 될 것이다. 즉 시장시세의 등락에 따른 위험은 매입과 매도사이의 가격결정방법과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좁혀주는 것이 헤징이다.

매입과 매도중 어느쪽의 가격결정이 先行되느냐 그리고 그 시차는 어느 정도나에 따라 헤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격상승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헤징을, 가격하락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매도헤징을 하면 된다.

1. 買入헤징(BUYING HEDGING)

제품판매계약이 선행되고 원유가격 상승이 리스크가 되는 정유업체나 원유의 事前확보없이 판매계약후 원유를 확보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헤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유회사는 장래에 구입하여야 할 원유의 가격을 현재의 가격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필요로 하는 원유를 사전에 現物로 확보해 둘 수도 있지만,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저장에 따른 탱크시설 보유문제, 소요자금의 금융비용 부담문제등 제반문제가 따르게 된다. 더우기 이렇게 現物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유가격이 폭락할 경우 재고가치 하락에 따른 재정상 막대

한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처한 기업은 장차 現物구입예정시점을 만기일로 하여 원유 先物市場에서 필요량만큼의 先物을 구입(매입헤징) 함으로써 일단 해당상품을 확보한 셈이 된다. 이때 先物을 매입하는 데는 소요자금이 총계약금액의 5~10% 정도면 가능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先物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해당거래소에서 규정한 소요증거금을 말한다. 시일이 흘러서 원유가격은 상승하는 동안에 실제 現物을 매입해야할 시점에 당도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당시의 가격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실물인 원유를 구입하게 되어서 실물측면에서는 가격상승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이미 매입했던 것과의 같은량의 원유를 매각함으로써 가격상승폭만큼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할 수 있다. (差金결제).

이때 선물시장에서의 이익의 폭은 現物원유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당시의 목표로 했던 원유가격보다 더 지불한 差額의 폭과 비슷하게 된다. 실물측면과 선물측면을 같이 놓고 볼 때 원유도입가격을 사업계획 당시 목표로 했던 수준으로 固定시킨 것이다(Price Fixing) 매입헤징을 하여놓고 예상과는 달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였을 때, 선물거래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폭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실물측면에서는 사업계획당시에 계산했던 가격보다도 더욱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한 결과가 되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도 실물측면에서의 이익의 폭이 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의 폭과 유사하게 되어 원유시세의 가격등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원유가격을 당초 예정한 가격으로 고정시키게 됨으로써 기업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게 된다.

2. 賣渡헤징(SELLING HEDGING)

원유확보가 선행되고 생산된 제품을 나중에 시세대로 판매하는 경우 매도헤징이 필요하다.

원유가격이 하향추세에 놓여질 때 정유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격이 현재가격수준보다 낮아지는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危險에 놓이게 된다. 물론 국내유가의 인위적인 왜곡이 정유회사의 손익에도 왜곡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리한 가격변동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실물측면에서는 원유가 구매되는 시점과 동시에 현물을 사전에 판매계약을 해 줌으로써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상은 시차없이 구입과 동시에 판매하기 위한 매입자의 물색이라든가 희망하는 판매가격의 실현문제등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게 현실이다. 이러한 실물시장에서의 제한성은 언제든지 매입·매도를 그 당시 市場價格으로 거래할 수 있는 先物市場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가격하락이 위험이 될 경우 생산제품이 실물시장에 판매가 예상되는 시점을 만기일로하여 선물시장에 선물로 매도한다(매도헤징).

시간이 경과되어 실물이 판매되는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이미 가격은 하락하여서 가격하락한 폭만큼 실물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지만, 선물시장에서 이미 가격이 내려가기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두었기 때문에 실물이 판매되는 시점에 동시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던 선물계약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청산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간 폭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先物去來에서 발생한 이익의 폭은 정유회사가 후일에 생산제품을 실물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폭과 비슷하게 되어 원유시세의 등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당초 기대했었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실물측면에서 오히려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선물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게 되므로 선물거래에서는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그 손실의 폭은 헤징을 개시하였을 때 목표로 하였던 판매가격이 기대 이상으로 상승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과 비슷하게 되어 기업은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실물거래의 결과차와 선물거래의 결과차가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Spread)의 변화로 인해 항상 정확하게 상응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일부위험은 있으나, 선물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헤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V. 선물거래의 이점

1. 기업의 目標利益 달성을 통한 安定經營

先物去來는 순수한 헤징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예상치 않은 불리한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발생될지도 모를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했던 가격을 고정시킴은 물론 이에 따른 순수한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선물거래 그 자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헤징을 통한 위험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안정된 울타리속에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다.

2. 기동성 있는 意思決定으로 競爭力 제고

기업이 항상 접하고 있는 實物市場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일일이 매매 상대방을 구하고 가격결정의 네고(Nego)문제에 있어 때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그러나 先物市場은 세계도처의 무수한 買賣注文이 집결되는 장소가 되어 한시라도 고객의 매매주문은 당시 형성되는 시장시세에 따라 즉각 집행이 되는 신속하고 체계화된 시장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실물시장의 경직성을 선물시장의 기동성·유동성과 조화시켰을 때 선물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구매와 판매에 따른 의사결정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경쟁력이 제고된다. 예를 들면, 원자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주문을 받아 결정해야 할 때, 수출가격은 수출상당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선적은 몇개월 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 향후 원자재가격이 예측을 빚나가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기업으로서 그 수출금액이 크면 클수록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는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수출주문 내지 경쟁입찰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되고, 실령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을 한다면 그 기업은 아무런 대책없이 임하게 되어 결국 投機를 한다고 볼 수 있다.

3. 資金의 효율적 이용

필요로 하는 원유를 사전에 실물로 소량을 확보해 두는 경우 원유가 수입이 된후 생산과정을 거쳐 商品化되고 판매를 통해 現金化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원유를 일시에 도입을 하고 싶어도 저장시설 문제는 물론 막대한 소요자금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기업으로 볼 때 한정된 자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동안 금융비용 발생등 비효율적인 자금의 사장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先物市場을 이용하게 되면 미리 買入헤징을 해둠으로써 필요로 하는 원유를 사전에 확보한 효과가 있게되며 또한 실제 선물거래시는 해당선물 거래금액의 5~10% 정도 자금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거래보다 몇배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레버리지 효과). 이것은 정부에서 원유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운용 목표를 소요원유의 안정확보와 低價도입을 위해 직접적인 원유확보 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시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軌를 같이 한다고 볼 때 先物市場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유도입의 경제성을 최대한 도모 하기 위한 시책에 부응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인다.

4. 保管費用의 절감

先物價格은 現物價格보다 선물기한에 해당하는 保管費用만큼 높게 형성되는데 따라서 원유 현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賣渡헤징을 해둠으로써 실제先物價格은 現物價格(Cash Price)보다 보관비용만큼 높게 팔리게 되어 나중에 선물을 청산하게 되면 보관비용만큼 추가이익을 얻게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물시장에서 買入先物을 하는 입장의 고객에서 볼때 보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도헤징을 통해 수혜하게 되는 이익은 先物去來를 이용하는 경우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이익으로 기업은 이러한 이익으로 실제 현물보관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5. 情報수집 및 가격분석능력 향상

現物市場의 가격은 선물가격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변동한다. 선물시장에는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보가 집결되고 이러한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의 견해에 따라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다. 따라서 여기서 결정되는 선물가격은 바로 모든 시장정보의 집약으로 표출된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급변하고 있으며, 신문에 나온 시세도 믿을 수 없다. 그건 이미 활자화되는 동안 과거의 시세가 되어 버린다. 시시각각 초를 재며 속변하는 국제시장경제 속에서 기름값이 언제 쫓겨, 갑자기 원자재 공급에 이변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안정된 경영은 물론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관리수단으로 선물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市場分析能力을 배양해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 원자재 파동의 震源地인 선물시장에 눈을 돌리고 선물가격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터득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가격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IV. 맺는 말

先物去來가 결코 가격변동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즉 헤징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는 실물의 흐름과 선물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특히 국내에서 주로 도입되는 油種과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요소는 있으나,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은 유사하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헤징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한편 실물영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석유 유통구조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인해 국제시세와는 시차를 가지고 별도로 형성되는 시장여건은 헤징의 효과를 半減시키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물거래를 유효적절하게 活用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원유도입을 통해 급격히 변동하는 국제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가능하리라 보고 보인다. ☐

